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동향	02
2. 국외 항만 동향	09
3. 품목 및 산업 동향	14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정기 컨테이너 노선 역대 최다인 279개 기록
- 인천항 '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선언
- 평택시, 평택항을 포함한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구축 추진계획 발표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닝보-저우산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터미널 운영 중단
- 베트남 최대항만 깃라이(Cat Lai)항, 컨테이너 적체 완화로 정상 운영 재개
- 남아프리카 주요 항만, 사이버공격으로 운영 일시 중단 후 복원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완전한 회복세 기록
- 중국, 발전수요 증대에 따른 연료탄 가격 상승세 기록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U의 'Fit-for-55' 발표에 우려 표명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 정기 컨테이너 노선 역대 최다인 279개 기록¹⁾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는 '21년 6월 부산항을 기항하는 정기 컨테이너 노선이 전년 대비 10개 증가한 주당 279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힘

- 통상 해당 노선의 발표는 해운동맹 정기노선 재편 시기인 매년 4월 기준으로 발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잡으로 6월 기준으로 발표함
- 부산항의 정기 컨테이너 노선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17년 253개 → '18년 263개 → '19년 268개 → '20년 269개 → '21년 279개)

총 54개의 선사(국적선사 13개, 외국적선사가 41개)가 정기적으로 기항하고 있으며 특히 국적선사의 노선이 전년 대비 18개 증가함

- 글로벌 3대 해운동맹 노선은 THE Alliance 16개, 2M 13개, OCEAN 11개로 총 40개를 유지 중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규 지역인 러시아, 오세아니아 및 부산 주요 환적 국가인 중국, 일본은 전년 대비 노선이 증가하였으며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은 감소함

- 중국(+6개), 오세아니아(+4개), 러시아(+3개), 일본(+2개), 아프리카(-3개), 동남아시아(-2개), 유럽(-2개)
- 북미 연결 항로는 태평양 항로의 선박 정시성 약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주당 42항 차를 유지함

한편 부산항을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의 평균 선형은 약 7,600TEU로 전년 대비 약 200 TEU 증가하였으며 노선 당 평균 선박 척수는 전년 대비 약 1척 감소함

- 북유럽(+3,500TEU), 미주 동안(+1,300TEU), 지중해(+1,200TEU) 등 원양노선을 운항하는 선박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평균 선형이 증가함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8.0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6604>(2021.08.13. 검색)



② 부산항 '50년까지 항만 초미세먼지 70% 감축 계획 추진²⁾

 BPA는 지난 8월 5일 '(2021~2025) 부산항 대기환경 개선 추진 전략(CAPP)'을 수립했다고 밝힘

- 부산항은 연간 약 4만 5천여 척(20년 기준)의 선박이 입출항하며 해당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이 부산의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9년 기준 부산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가장 높은 배출원은 선박(94.8%)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하역장비(5.1%), 차량(0.1%)순으로 나타남

 BPA는 4대 중점 추진 전략 및 32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서 부산항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감축 계획을 실행할 예정임

- 부산항의 감축 목표는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60% 감축 목표보다 10% 더 높은 수준임
- 4대 중점 추진 전략은 항만 차원의 대기환경 관리 기반 마련, 항만의 배출·오염 영향 모니터링 강화, 항만 배출원 배출관리 강화, 신재생 에너지 도입으로 탄소 중립 구현이 있음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8.05.),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6602\(2021.08.13.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6602(2021.08.13. 검색))

2) 인천항

①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³⁾

 해수부는 지난 8월 9일, 인천항 내항 1부두, 8부두 재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인천항만공사(IPA)를 선정함

- IPA가 제안한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5천억 원에 이르고 해당 면적은 42만 평방 미터에 육박함
- 항만기능을 재편하여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시설비율을 50% 이상 확보하고 다양한 친수시설을 건설할 계획임
- 향후 IPA는 해양수산부와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

② 인천항 '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선언⁴⁾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의 탄소중립 달성시기를 '50년으로 선언

- IPA는 1기~3기로 구분된 '인천항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 탄소중립 1기(2021~2030)에는 인천항 탄소중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여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2기(2030~2040)에는 항내 하역기능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하역장비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원 활용기반 등을 구축할 계획임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8.09.),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9418&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1.08.18.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9418&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1.08.18. 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8.1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9427&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1.08.18.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9427&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1.08.18. 검색))

-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3기(2040~2050)의 목표는 배후물류단지 및 항만내 선박·육상트럭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임

☞ 향후 인천항의 탄소중립은 인천항만공사뿐 아니라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등 유관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인천항 2050 탄소중립 프로세스



자료: 인천항만공사(<https://www.icpa.or.kr>)

3) 여수·광양항

①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전세계 항만 최초 OBP 인증 획득⁵⁾

☞ YGPA는 국제 친환경 인증심사기관인 '컨트롤유니온코리아'로부터 OBP(Ocean Bound Plastic)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함

- OBP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수거를 통해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증으로, YGPA는 전 세계 항만 최초이자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함
- YGPA는 지난해부터 광양항 입항선박에서 배출되는 해양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업사이클링(Upcycling) 하는 등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업사이클링 전 과정 추적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 YGPA는 이번 OBP 인증을 계기로 향후에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실현을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사업을 공유 및 지속·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7.28.), [https://www.ygpa.or.kr/kr/yl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963&category=\(2021.08.11. 검색\)](https://www.ygpa.or.kr/kr/yl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963&category=(2021.08.11.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 '울산항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보고⁶⁾

🌱 울산항만공사(이하 UPA)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부응을 위해 '울산항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마련함

- '15년 파리협정, '19년 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각 국가들은 중장기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어옴
- 우리나라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비전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IMO2050을 통해 선박 탄소배출을 50%까지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UPA는 지난 6월 '울산항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7월 22일 항만위원회에 보고했으며, 항만 기후변화 대책을 포괄하는 탄소중립 실현 및 항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8월 울산항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할 예정임

🌱 UPA는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에코-스마트항만을 구축하고 울산항 미래 신성장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함

- 울산항의 3대 전략은 '저탄소 항만 인프라 구축', '친환경 항만운영 전환', '탄소중립 항만생태계 조성'임
- 이를 위해 향후 LNG-수소-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수소 기반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개발, 친환경 선박 입항 확대 및 하역장비 전환 등을 추진하여 '50년까지 울산항 맞춤형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임

②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종합상황실 운영⁷⁾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은 울산항 민간부두의 경비와 보안업무를 총괄 하는 종합상황실을 9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임

- 울산항 종합상황실은 기존 국유부두에 한정되어 운영해 온 경비종합상황실을 울산항 27개 민간부두의 CCTV 70개와 확대-연계하여 항만보안 및 감시체계를 총괄 지휘하게 됨
- 울산청은 작년 1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25억 원을 투자하여 작년 말 종합상황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8월 11일부터 시범운영하여 장비점검 및 시설보완 등을 거쳐 정상 운영할 예정임
- 울산항 종합상황실은 항만을 통한 밀수, 밀항, 밀입국자 등 보안사고 및 테러 등의 발생 징후를 감시하며, 보안사고 발생시 부두 담당자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될 예정임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7.23.),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2887(2021.08.13. 검색)

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8.12.),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32350>(2021.08.13.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시, 평택항을 포함한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구축 추진계획 발표⁸⁾

🌱 평택시는 전국 최초로 수소특화단지, 수소도시, 수소항만이 융합된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를 추진하고 있음

- 평택시는 미세먼지 수준이 높은 평택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미래 산업 유치를 위해 평택항 일대의 수소복합지구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는 수소의 생산과 활용이 평택항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연관 산업이 집적화되는 복합지구임
- 최근 3년간 5건의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총 1,1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2개 기업 및 기관의 투자를 유치하여 7월 26일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선포 및 투자협약'을 맺음
- 평택수소특화단지에는 16개 기업 및 기관들이 '24년까지 6,4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생산 및 액화, 연료전지발전, 장비제조사업 등이 추진되며, 생산시설 준공시 수소 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의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산 등이 기대됨

🌱 항만에는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기반으로 기업 및 기관들이 '40년까지 수소 전환 실증 및 보급사업, 그린수소 도입사업을 추진하게 됨

-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한국조선해양,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하여 '40년까지 트럭, 선박 등에 대한 수소전환 실증 및 보급사업, 그린수소 도입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 또한, 평택항 배후도시는 수소특화단지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교통, 산업, 상업, 주거에 이르기까지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수소도시로 조성될 예정임

평택시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8) 평택시 보도자료(2021.07.28.),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ldx=240848&ptidx=90>(2021.08.13. 검색)

자료: 평택시 보도자료(2021.07.28.),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ldx=240848&ptidx=90>(2021.08.13.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주)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 유치⁹⁾

 포항시는 7월 8일에 (주)포스코케미칼과 양극재공장 건립에 대한 MOU를 체결함

- 포스코케미칼은 '22년부터 6천억 원을 투자해 포항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연간 생산능력 6만 톤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포항시와 합의함
- 앞서 동 부지에는 양극재 분야에 투자 중인 에코프로가 '25년까지 1조 7천억 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분야 신사업에 진출한 GS건설이 '24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예정됨
-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포항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차전지 관련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9) 포항시 보도자료(2021.08.04.), [https://www.pohang.go.kr/bbs/news/589/678405/articleView.do\(2021.08.11. 검색\)](https://www.pohang.go.kr/bbs/news/589/678405/articleView.do(2021.08.11. 검색))

7) 대산항

① '21년도 2분기 항만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¹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1년도 2분기 항만물동량이 전년 동기(1,816만 3천 톤) 대비 16.3% 증가한 2,113만 4천 톤을 기록했다고 밝힘

- 컨테이너 처리량은 1만 8,933TEU(적컨 1만 374TEU, 공컨 8,559TEU)로 전년 동기 대비 46.8% 감소함
- 품목별로는 석유정제품 868만 4천 톤(41.1%), 원유 660만 4천 톤(31.2%), 유연탄 247만 5천 톤(11.7%)이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2%, 4.7%, 8.9% 증가함
- 한편 '21년 상반기 처리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4,339만 8천 톤이며, 컨테이너의 경우 3만 7,097TEU를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34.1% 감소함

1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7.29.), [https://dae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311&boardKey=66&menuKey=472&currentPageNo=1\(2021.08.12. 검색\)](https://dae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311&boardKey=66&menuKey=472&currentPageNo=1(2021.08.12. 검색))

8) 동해·묵호항

① 묵호~울릉 여객선 운항 재개 불투명¹¹⁾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묵호항~울릉도 간 여객선 운항의 장기간 휴업이 이어지자 여객선사에 운항 재개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 중인 정도산업(주)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월부터 운항을 중단하고 있음
- 선사 측은 이용객이 평년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장기간 휴업이 불가피하며, 당분간 운항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그러나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자는 6개월을 초과해 휴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음
- 행정처분은 과징금 부과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여객선 운항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11) 경북도민일보(2021.08.12.),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078\(2021.08.17. 검색\)](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078(2021.08.17. 검색))

9) 목포항

① 목포신항, 항만 배후 지역에 물류 집적화 부지 확보¹²⁾

☀ 목포청은 7월 20일에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한다고 밝힘

- 동 사업은 복합물류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근린공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48만 5천 m²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7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1년 7월 20일에 준공함
- 항만배후단지 부지에 대하여는 지역 산업 및 입주 희망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나, 목포신항 자동차부두와 연접한 일부 부지에는 자동차 연관 업체의 입주를 우선 추진할 계획임
- 목포항은 본 부지의 민간기업 입주를 통해 연간 6만 8천 TEU의 화물과 연간 155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 활동 지원, 목포항 배후 산업 발전, 수출자동차 운송 관련 기업의 편의성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 목포청은 배후단지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물류 효율성을 향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중국 및 동남아권 교역의 증대를 대비한 서남권 중추항만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7.20.),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2189>(2021.08.09. 검색)

10) 군산항

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안전점검 기관 직접 선정으로 통해 항만건설 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¹³⁾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직접 모집함

- 당초 건설 시공사가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였지만 이와 같은 선정과정으로 인해 그동안 안전점검 결과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음
- 하지만 지난 '19년 7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 공사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이 직접 점검 기관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음
- 이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30일(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선정할 계획임

☀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는 것은 향후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1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8.12.),
<https://gusan.mof.go.kr/ko/board.do?menuidx=1115&bbsidx=32352>(2021.08.19.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닝보-저우산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터미널 운영 중단¹⁴⁾

- 지난 8월 11일, 닝보-저우산항의 메이동 컨테이너 터미널(Meidong Container Terminal)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터미널 운영을 중단함
- 모든 수입 컨테이너의 픽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재개시간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라 밝힘
- 총 물동량 기준 세계 1위이자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3위 항만인 닝보-저우산항이 일부 폐쇄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19 무관용 원칙 고수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 공급망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 지난 5월 말에는 옌텐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항만을 약 한달 간 폐쇄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근 항만 및 미 서안 항만의 적체가 심화됨

② 텐진항, 세계 최초 탄소 제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추진¹⁵⁾

- 중국 텐진항은 세계 최초 탄소 제로 지능형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텐진항 C구역에 위치한 해당 컨테이너 터미널은 올해 말 가동 예정된 신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로 자동화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 예정임
- 모든 항만 하역장비, 운송 시설, 보조 장비 등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전기로 운영할 계획임
- 운영 초기에는 풍력 터빈 2개 및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달성할 예정이며 운영이 정상화 되어 처리량이 증가하는 내년에는 신규 풍력 터빈 2개를 적기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을 제로화 하겠다고 밝힘
- 한편, 텐진항은 향후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탄소 중립을 목표로 청정 에너지 활용, 녹색 저탄소 운송, 녹색 에너지 공급 등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라 밝힘

14) 한국해운신문(2021.08.11.),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53>(2021.08.13. 검색)

15) Seatrade Maritime News(2021.07.30.),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tianjin-port-develop-worlds-first-zero-carbon-terminal> (2021.08.13. 검색)



③ 하이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물류 클러스터 구축 예정¹⁶⁾

중국 정부는 '35년까지 하이난섬에 선진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최고 수준의 해상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 밝힘

- 중국 교통부는 하이난의 자유무역항을 세계적 교통 요충지로 만들기 위한 주요 목표를 열거한 논평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문서에 해상 물류 클러스터 구축이 포함됨
- 중국 정부는 지난 '20년 6월 1일 '중국몽' 프로젝트 중 하나로써 하이난을 중국 최대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하이난 자유무역항(50년) 건설 계획을 발표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하이난 당국은 해상 운송 부문의 통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형성할 계획임

- 이와 함께 향후 물류기업과 개인에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임
- 또한 하이난 정부는 물류 분야의 고급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 및 활성화 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임

한편, 전국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의결하는 등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임

16) Hellenicshipping News(2021.08.04.),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hina-plans-to-turn-hainan-into-a-top-notch-cluster-of-maritime-logistics-by-2035/>(2021.08.13. 검색)

2) 아시아

① 일본 3대 선사, '21년 1분기 순이익 급상승¹⁷⁾

NYK, MOL, K Line 등 일본의 3대 해운선사는 '21년 회계연도 2분기(4~6월) 사업 실적을 발표함

- 3대 해운선사는 총 3,572억 2,700만 엔(한화 3조 8,07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이전 3개월(1~3월)의 3,410억 7만 엔(한화 3조 6,344억 원) 대비 상승함
- 선사별로 살펴보면, NYK는 순이익 1,510억 9,300만 엔(한화 1조 6,1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3.1% 증가하였으며, MOL은 전년 동기 대비 1,796% 증가한 1,040억 1,470만 엔(한화 1조 1,087억 원)을 기록함

17) JIFFA(2021.08.05.), <https://www.jiffa.or.jp/en/news/entry-7239.html>(2021.08.17. 검색)



-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의 회복세 영향으로 판단되며, 3개 해운선사 모두 상당한 이익을 창출함에 따라 '21년 회계연도의 당초 수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 NYK는 당초 계획보다 259.1% 증가한 5,000억 엔의 순이익을 예상하며, MOL은 3,350억 엔(272% 증가분), K Line은 2,650억 엔(143.8% 증가분)을 전망함

② 베트남 최대항만 깃라이(Cat lai)항, 컨테이너 적체 완화로 정상 운영 재개¹⁸⁾

- ☞ 호치민시의 깃라이항은 코로나19 재확산 심화로 시행된 남부이동 제한조치와 항만내 컨테이너 적체 심화로 지난 일주일 간 정상적인 항만운영이 불가능하였음
- 지난 8월 5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과 물류업체 폐업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컨테이너 적체현상으로 깃라이항은 대형화물과 중량화물의 수입을 중단하였음
- ☞ 하지만 깃라이항 운영사인 Saigon Newport Corporation은 터미널 처리능력이 85% 까지 회복되고 선박대기시간도 8시간 미만으로 감소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힘
- 일주일 간 중단된 수입으로 물류활동이 중단된 업체들은 베트남 내륙지역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화물을 무료로 운송할 수 있게 됨
- Saigon Newport Corporation 관계자는 3분기 내로 코로나19 재확산이 통제된다면 '21년 깃라이 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18) Vnexpress (2021.08.11),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s-biggest-port-resumes-normal-operations-after-clearing-pileup-4338883.html>(2021.08.19. 검색)



3) 미주

① 롱비치항, 미들하버 재개발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¹⁹⁾

- ☀ 약 11년 간 14억 9천만 달러가 투입되어 롱비치항 F부두와 E부두를 통합하는 미들하버 재개발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
- 이 프로젝트는 '09년에 승인하여 1단계 공사는 '11년 착공해 '16년 완공됐으며, '17년 2단계, 올해 6월 3단계가 완공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음
- 미들하버 재개발 프로젝트로 컨테이너 터미널 면적 304에이커와 용량 350만 TEU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터미널 규모로는 미국 내 6번째임
- 선박에서 야드로의 컨테이너 이동 작업을 전기화 했으며, 항만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기 및 제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함
- 선박용 육상 전력의 100% 공급, 트럭 이동 최소화를 위한 철도 야드 배치, 주차장 태양광 패널, LEED 골드(인증)를 받은 건물 등을 도입하여 배출가스 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갖춤

19) Los Angeles Business Journal(2021.08.16.), <https://labusinessjournal.com/news/2021/aug/16/long-beach-port-open-terminal/> (2021.08.16. 검색)

4) 유럽

① 로테르담항, 노르웨이산 블루암모니아 수입 MOU 체결²⁰⁾

- ☀ 로테르담항은 노르웨이 기업인 Horisont Energi(이하 HRGI)와 블루암모니아 수입항로 개설에 관한 MOU를 8월 5일에 체결함
- 로테르담항과 HRGI는 북노르웨이 바렌츠 해에서 생산된 블루암모니아를 로테르담항으로 수송하는 것에 대한 협력방안을 탐색할 것을 MOU를 통해 합의함
- MOU에 따르면 블루암모니아 생산과 관련한 최종 투자는 '22년 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로테르담으로의 블루암모니아 수송은 적어도 '25년까지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암모니아는 비료와 화학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원료 뿐 아니라, 효율적인 수소 운반체의 역할을 하여 탄소 중립화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연료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 로테르담항은 '50년 로테르담 내 수소 수요가 최대 2천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암모니아 1억 톤에 해당하는 수준임
- 한편, 로테르담항은 서유럽의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서 EU 전체 에너지 수요의 13%가 로테르담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음

20) Port of Rotterdam(2021.08.05.),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horisont-energi-and-port-of-rotterdam-sign-memorandum-of-understanding>(2021.08.09.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오클랜드항, 자동화 프로젝트 재가동²¹⁾

- ✎ 오클랜드항은 지난 6월 17일 자동화 터미널 운영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일시 중단한 자동화 프로젝트를 재가동함
 - 오클랜드항은 신규 터미널 건설을 위한 공간부족으로 기존 수동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일부 구간을 자동화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있음
- ✎ 사고로 인해 중단된 기간 동안 자동화 프로젝트를 재평가하여 계획을 재설정하였으며 자동화 프로젝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크게 4단계로 진행될 예정임
 - 1단계(시스템 승인 테스트), 2단계(Fergusson 터미널 North Berth 일부 자동화), 3단계(Fergusson 터미널 North Berth 전체 자동화), 4단계(Fergusson 터미널 완전 자동화)
- ✎ 일부 구간에 대해서 1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자동화 시범 운영을 성공하였지만 시스템의 속도 및 신뢰도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안정성 검토 결과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보장 프레임워크 구축에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 보장을 위해 더 많은 작업을 할 것이며 현재에도 해당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21) Port of Auckland(2021.08.02).
[https://www.poal.co.nz/media-publications/Pages/Ports-of-Auckland-Automation-Update.aspx\(2021.08.13. 검색\)](https://www.poal.co.nz/media-publications/Pages/Ports-of-Auckland-Automation-Update.aspx(2021.08.13. 검색))

- ✎ 해당 프로젝트는 '22년 3월 말에 완료되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의 델타 변종 등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프로젝트는 지연될 수 있음

6) 아프리카

① 남아프리카 주요 항만, 사이버공격으로 운영 일시 중단 후 복원²²⁾²³⁾

- ✎ 지난 7월 22일 남아프리카 주요 항만 및 철도 등의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국영 물류 기업인 트랜스넷(Transnet)이 사이버공격을 당함
 - 사이버공격으로 주요 장비와 정보가 파손되었으며 이로 인한 접속 장애로 트랜스넷은 주요 고객들에게 불가항력적 계약불이행을 선언함
- ✎ 이로 인해 남아프리카의 주요 항만인 더반항, 응쿠라항, 포트엘리자베스항, 케이프타운항 등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이 중단됨
 - 더반항은 남아프리카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의 약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
 - 한편, 더반항은 지난 7월 초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수감에 반대하는 시위와 함께 대규모 폭동으로 항만이 폐쇄된 바 있음
-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운영중단은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7월 29일 정상화 되었으나 폭동과 사이버공격에 따른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보안 전문가들은 해당 사이버공격이 동유럽과 러시아 범죄 조직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파악함

22) CNBC(2021.07.27.) [https://www.cnbc.com/2021/07/27/transnet-halts-port-operations-in-south-africa-after-major-cyberattack.html\(2021.08.13. 검색\)](https://www.cnbc.com/2021/07/27/transnet-halts-port-operations-in-south-africa-after-major-cyberattack.html(2021.08.13. 검색))

23) Bloomberg(2021.07.2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7-29-death-kitty-ransomware-linked-to-attack-on-south-african-ports\(2021.08.13. 검색\)](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7-29-death-kitty-ransomware-linked-to-attack-on-south-african-ports(2021.08.13.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완전한 회복세 기록²⁴⁾

📍 '21년 5월 전 세계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지수(Global Container Port Throughput Indices; GCPTI)²⁵⁾는 전월 대비 2.4%,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한 141.3p를 기록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내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4월 수에즈 운하 사태 및 급증한 수요로 인한 항만 적체 등으로 전월 대비 2.5%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주춤함
- 그러나 5월에 접어들면서 항만 물동량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성수기인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전월 기준으로는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세를 나타냄

- 중국 지역 항만은 전년 동월 대비 9.8%, 전월 대비 2.8% 증가한 151.2p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같은 기간 각각 15.7%, 1.0% 증가한 134.6p를 기록함
- 특히 싱가포르항, 포트클랑항, 부산항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
- 북미 지역의 경우 전 지역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증가세인 40.3% 증가한 171.0p를 기록하였으며 LA항, LB항, 뉴욕·뉴저지항 등 상위 3개 항만이 4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함
- 그러나 북미 지역의 항만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항만 적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유럽 지역 항만은 전년 대비 11.7%, 전월 대비 0.1% 증가한 122.3p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인 '19년 5월(126.7p) 수치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남미지역의 경우 전월 대비 4.7%,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한 128.6p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오세아니아 지역 역시 전월 대비 4.6%, 전년 동월 대비 16.8% 각각 증가함
- 반면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은 전월 대비 각각 0.7%, 4.9%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16.9%, 24.9% 증가세를 기록함

24) 한국해운신문(2021.08.05),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95>(2021.08.13. 검색)

25) 2012년 1월의 전 세계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을 100으로 놓고 매월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감률을 지수화한 것으로 Drewry가 전 세계 235개 이상의 컨테이너 항만,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75% 이상을 분석하여 수치화 하고 있음



2) 양곡

① 7월 주요 곡물 수입단가는 대부분 품목이 전월 대비 상승, 단 채유용 콩은 전월 대비 9.2% 하락²⁶⁾

☞ 식용 밀과 사료용 콩(대두박)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옥수수(식용/사료용)와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함

- 7월 밀(식용)과 옥수수(식용)의 수입단가는 톤당 323달러, 303달러로 각각 전월 대비 1.0%, 4.1% 증가한 반면 채유용 콩은 전월 대비 9.2% 감소한 톤당 456달러를 기록함
- 사료용 밀(톤당 96달러)과 옥수수(톤당 275달러)의 수입단가는 모두 전월 대비 각각 10.0%, 8.5% 대폭 상승한 반면 대두박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소폭(1.1%) 상승한 톤당 468달러를 기록함

② 7월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 전월대비 3.8% 상승한 144.8 기록²⁷⁾

☞ 생산량 하향조정, 수출판매 실적 부진, 주산지 기상여건 개선에 따라 7월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3.8% 하락함

- 7월 밀의 선물가격은 톤당 242달러로 전월대비 1.2% 하락하였으나 미국 밀생산량 하향조정발표와 밀 주산지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우려로 7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기록함
- 옥수수의 7월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8.7% 하락한 톤당 242달러를 기록, 미국 옥수수 주산지의 기상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판매 실적이 부진하여 선물 가격이 하락함
- 7월초 미국 콩 주요산지의 기상여건 개선이 전망되어 7월 콩의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2.6% 하락한 톤당 523달러를 기록함

26)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 8월호(2021.07.30.),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091/page/1\(2021.08.19.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091/page/1(2021.08.19. 검색))

27)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 8월호(2021.07.30.),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091/page/1\(2021.08.19.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091/page/1(2021.08.19. 검색))



3) 시멘트

① 레미콘 생산공장 259곳 일제점검 결과, 604건의 부적합 적발²⁸⁾

국토교통부는 5개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 중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함

- 국토교통부는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3월 4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5월 3일~7월 2일)을 실시함
- 그 결과,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 중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함
-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함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차광막 등)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 내 잔여레미콘 미 제거 상태에서 레미콘 상차’ 등이 있었음

-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토록 함
-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슬럼프, 염화물 함량, 공기량 등)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함
- 이번점검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 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했으며, 시판품 조사결과 KS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

2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07.19.),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cmspage=1&id=95085799(2021.08.13. 검색)

4) 모래

① 인플레이션 속 글로벌 건설시장 대응²⁹⁾

건설시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이나, 건설 생산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은 불확실해졌으나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량 증가,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자산가격 상승 영향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음

2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21.08.02.), [http://www.cerik.re.kr/report/briefing#/\(2021.08.13. 검색\)](http://www.cerik.re.kr/report/briefing#/(2021.08.13. 검색))



- 시장 전망은 낙관적이나 건설기업은 건설 생산비용 증가, 인력 부족, 취약한 공급망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업의 공기 지연 및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음
- 글로벌 건설시장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건설 생산비용의 증가와 수익 감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 건설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등에 취약하며 자재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함

- 현재 자재 부족과 가격 상승이 건설시장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자재 가격의 변동 및 수급불안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의 수요가 증가하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부족해지고 국제 운송량 증가로 공급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 자재의 수급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됨
- 자재 가격과 납품 일정의 변동에 따른 위험은 발주자, 건설사, 자재 공급업체 모두에게 있으나 위험의 영향력은 건설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향후 1년간 자재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재 및 장비의 적기 조달을 위한 상세한 계획 수립과 자재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등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5) 석탄

① 중국, 발전수요 증대에 따른 연료탄 가격 상승세 기록³⁰⁾

🌟 8월 1주차의 연료탄 가격은 석탄 공급 차질 및 중국의 하절기 전력수요 급증, 산업생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4.5% 상승함

- 8월 1주차에 이어 2주차에도 연료탄 가격은 주중 톤당 160달러선을 상회하면서 전주 대비 9.1%의 상승세를 기록함
- 중국은 탄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몽고 38개 탄광의 조업 재개에 이어 북부 15개 탄광의 조업 재개를 허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4,400만 톤의 추가 석탄 생산을 추진할 예정임
- 한편, Zhengzhou Commodity Exchange(Zhengzhou 상품거래소)의 연료탄 선물 가격은 여름철 폭염 및 산업 생산 회복으로 톤당 138.34달러로 상승하였으며, 중국 전력난 심화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30)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8.17.),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08.17. 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08.17. 검색))



6) 철광석

① 지속적인 가격 하락 전망³¹⁾

중국 정부의 철강 감산 정책으로 인해 하반기 철강 생산 증가율은 둔화하고 철광석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작년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한 이후 올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1년 중국 상반기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함
- 중국 정부는 이를 지적하며 '21년 연간 생산량이 전년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21년 중국 하반기 생산 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8월 5일 다렌상품거래소의 철광석 가격은 톤당 171.55달러, 중국 칭다오항의 62% Fe 분광 철광석 가격은 톤당 154.54달러로 각각 전일 대비 6.6%, 5.6% 하락하여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31)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8.05.),
https://m.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8.09. 검색)

7) 기타광석

① 동, 니켈 등 주요 광물가격은 델타변이 확산 및 미국의 테이퍼링 조기 추진 우려로 하락세 기록³²⁾

전 세계적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및 미국의 테이퍼링 조기 추진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기피로 비철금속 가격 하방압력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전기동과 니켈 가격은 8월 1주차 기준 각각 전주 대비 1.5%, 0.8%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미달러 가치의 하락 및 미국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확대 법안의 상원통과로 인해 하방압력은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전망됨
- 동의 경우 칠레 국영기업 Coledo사의 6월 동 광산생산이 15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칠레의 1~6월 동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임
- 니켈은 인도네시아의 니켈제련소 생산능력 확대로 국영기업 PT Antam사의 2분기 니켈광 생산량이 270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1% 증가하면서 '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다만, LME(런던금속거래소) 전니켈 재고량은 8월 2주차 기준 205,126톤으로 전주 대비 2.6% 감소하여 1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됨

32)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8.09.),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08.1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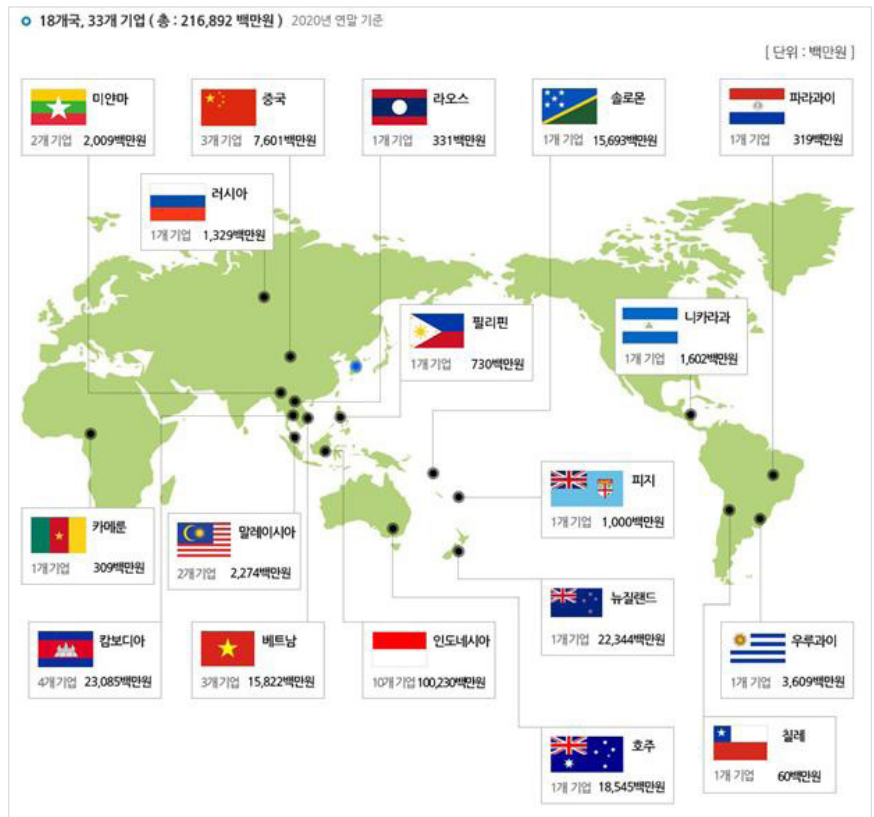


8) 목재

① 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확대 지원³³⁾

올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 예산은 총 82억 원이며, 상반기에는 4개 업체가 46억 원을 융자해 해외조림사업을 추진 중임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은 우리 기업이 직접 해외조림·육림·목재가공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임
- 올해 상반기에는 무림피앤피, 이건설업, 우림에너지, 산림조합중앙회 4개 업체가 46억 원을 융자받아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베트남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들의 추가 융자 지원 요청으로 36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별도 지원됨
- 융자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사업' 등 임
- 추가 편성된 36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은 9월 3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접수받아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하반기 중 융자금을 받을 수 있음



33) 산림청 보도자료(2021.08.09.),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1596&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8.13.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1596&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8.13. 검색))

자료: 산림청 보도자료(2021.08.09.),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1596&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8.13.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1596&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8.13. 검색))

9) 고철

① 전기로업계의 대보수 공사 이후 조업 재개³⁴⁾

8월 첫 주 국내 11개 전기로 제강사 중 6개사가 대보수를 진행하며 스크랩가격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8월 둘째 주부터 조업을 재개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5일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내 철강사들의 생산설비 최대 가동을 독려하였음
- 제강업계의 가동 정상화에 따라 스크랩 소비가 다시 증가하여 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전체 시중 물동량의 50%를 구매하고 있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8월 말부터 9월 까지 대보수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스크랩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9월 중순 이후 추석연휴로 인한 약세요인이 가중되어 상승 동력이 약화될 전망임

34) 스크랩워치(2021.08.09.),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6>(2021.08.09. 검색)

10) 철재

① 산업통상자원부, 하반기 철근 수급 안정 전망³⁵⁾

산업통상자원부는 '21년 하반기 국내 철근 시장에서 수요 대비 약 10만 톤을 초과하는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함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등 7개 부처는 8월 5일 '제2차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함
- 금년 하반기 철근 수요는 선행지표인 착공면적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약 9% 증가한 55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함
- 금년 하반기 철근 공급은 국내 철강사들의 하반기 생산계획과 해외 수출입 동향을 토대로 지난해 대비 약 11% 증가한 560만 톤으로 예측하여 수요 대비 10만 톤 많은 공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단을 재가동하여,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재기 등의 시장교란행위와 특정기간 수요의 쏠림 등에 적극적인 대응계획을 발표함

35) 산업통상자원부(2021.08.05.),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4430&from_brf=brf&brf_code_v=11(2021.08.09. 검색)



11) 자동차

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U의 'Fit-for-55' 발표에 우려 표명³⁶⁾

📌 EU의 Fit-for-55 발표와 관련하여 유럽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주요 자동차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함

-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뉴딜('19년 12월) 및 '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21년 4월, 40% 감축 → 55% 감축) 달성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EU 기후변화정책 종합 패키지(Fit-for-55)를 발표함
- 금번 Fit-for-55는 EU 집행위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로 향후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미 일부 회원국 및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함
- 자동차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는 '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및 급격한 자동차 CO₂ 기준 강화에 반대했으며, 특히 CO₂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도 모두 퇴출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함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는 EU Fit-for-55 발표와 관련하여 '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및 자동차 CO₂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국내업체의 경우, 내연기관차 판매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재 EU로 활발하게 수출 중인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깊은 우려를 표명함
- 국내업체는 기존의 EU 규제 기준('30년 37.5% 감축)에 맞춰 수립한 수출차종 및 생산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함

②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글로벌 100대 부품업체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³⁷⁾

📌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국가별 100대 부품업체수 순위가 일본(23개), 미국(22개), 독일(18개), 한국(9개), 중국(8개) 순으로 나타남

- '19년 대비 미국, 한국, 중국의 업체수는 1개씩 증가, 일본의 업체수는 1개 감소했으며, 상위 10개 국 중에는 영국이 1단계 하락한 것 외에는 순위 변동이 없었음
- 상위 10개 부품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매출은 -0.1%~-2.4%로 감소폭이 적었으나, 4위 이하 업체들의 매출은 -4.1%~-17.2%로 감소폭이 커서 업체 간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36)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8.05.),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_id=520&menu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1.08.13. 검색)

37)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8.13.),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_id=524&menu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1.08.13. 검색)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3. 품목 및 산업 동향

22

국가별 100대 부품업체수 현황

순위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순위변동	
1	일본	27	26	23	24	23	△1	-
2	미국	23	19	23	21	22	+1	-
3	독일	16	19	19	18	18	-	-
4	한국	6	7	6	8	9	+1	-
5	중국	6	6	7	7	8	+1	-
6	프랑스	4	3	3	4	4	-	-
6	캐나다	4	4	4	4	4	-	-
8	스페인	3	3	3	3	3	-	-
9	영국	1	3	3	3	2	△1	△1
9	스위스	1	1	2	2	2	-	-
-	기타	9	9	7	6	5	△1	-
합계		100	100	100	100	100	-	-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8.13.),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24&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8.13. 검색)

상위 10대 부품업체 현황

(단위: 백만 \$, %)

순위	업체명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1	보쉬	독일	46,500	47,500	49,525	46,555	46,515	-0.1
2	덴소	일본	36,184	40,782	42,793	41,812	41,127	-1.6
3	ZF	독일	38,465	34,481	36,929	34,229	33,400	-2.4
4	마그나	캐나다	36,445	38,946	40,827	39,431	32,647	-17.2
5	아이신	일본	31,389	33,837	34,999	33,404	31,935	-4.4
6	콘티넨탈	독일	32,680	35,910	37,803	35,309	29,683	-15.9
7	현대모비스	한국	27,207	24,984	25,624	26,155	25,074	-4.1
8	포레시아	프랑스	20,700	19,170	20,667	19,900	17,585	-11.6
9	리어	미국	18,558	20,467	21,149	19,810	17,046	-14.0
10	발레오	프랑스	17,384	19,360	19,683	18,049	16,946	-6.1
상위 10개 부품업체			30,512	315,437	329,999	314,654	291,958	-7.2
비중			38.9	38.3	38.6	38.0	39.2	+1.2%p
합계			784,675	823,164	854,934	828,054	745,310	-10.0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8.13.),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24&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8.13. 검색)

📌 국가별로는 한국과 중국이 작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른 내수 회복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20년 발표된 매출액'은 '19년 발표된 매출액 대비 감소폭이 -3.0%로 100대 글로벌 부품업체의 매출합계 감소폭 -10.0%보다 낮아 선방했으며, 이는 내수가 역대 최고치로 좋았던 점(190.6만 대), 여기에 국내 시장에서 단가가 높은 SUV(+15.8%)와 전기동력차(+57.6%)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회복된 내수에 힘입어 '19년 발표된 매출액 대비 유일하게 매출이 증가(+6.9%)했으며, 따라서 대부분 기업들의 순위도 상승함
- 해외 5개사와 국내 9개 부품사의 영업이익률과 연구개발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이익률은 해외 기업들 대비 구조적으로 더 낮으나 코로나19 영향 차이로 상대적으로 선방함

12) 잡화

① '21년 6월 전년 동월 대비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41.7% 증가한 193억 9,5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26.1% 증가한 123억 8,700만 달러 기록³⁸⁾

📌 6월 기계 산업 수출은 모든 업종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7.0%), 미국(66.0%), 베트남(61.7%)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6월 기계 산업 수입도 전기기계업(+18.4%)과 정밀기계업(+14.5%), 수송기계업(+58.9%)등 모두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임

📌 '21년 상반기 기계 산업의 수출과 수입금액도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26.1%, 26.0%의 증가세를 기록함

- 수출부문에서 가장 큰 신장세를 기록한 업종은 수송기계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7.3% 증가한 485억 2,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정밀기계업종의 수입금액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가장 큰 폭(29.9%)의 증가율을 기록함

38)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8월호(2021.08.17),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08.19. 검색\)](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08.19. 검색))



'21년 6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1. 6				'21. 1~6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19,395	41.7	12,387	23.7	109,974	26.1	69,779	26.0
일반기계업	4,762	18.7	4,033	13.7	26,337	9.0	23,567	29.6
전기기계업	3,754	46.8	2,171	18.4	20,517	32.1	12,343	24.1
정밀기계업	1,623	27.2	2,403	14.5	9,431	25.4	15,089	29.9
수송기계업	8,201	61.4	3,168	58.9	48,529	37.3	15,487	23.9
조선	1,863	43.4	355	38.3	11,413	23.7	1,177	-11.8
금속제품업	1,055	38.2	612	13.2	5,161	10.4	3,292	5.2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유류·화학공업생산품

① 코로나19 백신보급 확대로 관련 산업 소재 판매 큰 폭의 증가세 기록³⁹⁾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주사기에 사용되는 고무명 의료용 폴리프로필렌(PP)의 '21년도 상반기 실적이 '20년도 연간 실적을 상회함

- 전 세계 주요국들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됨에 따라 '21년 상반기 롯데케미칼의 고무명 의료용 폴리프로필렌 판매량은 약 1만 6천 톤을 기록, '20년도 연간 판매량인 1만 4천 톤을 상회하였음
- '21년 하반기에도 백신 접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무명 의료용 폴리프로필렌(PP)의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고무명 의료용 폴리프로필렌(PP)는 기존 의료용 플라스틱 제품의 낮은 투명성을 개선한 상품으로 수액백, 진단키트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여수공장과 대산공장에서 매달 고무명 의료용 폴리프로필렌(PP)을 각각 1만 2천 톤, 7천 톤 생산하는 롯데케미칼은 고부가 제품인 PP의 수출 증가로 '21년 하반기에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9)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2021.08.10),
https://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549/page/2/term_id/6/v_mode/user
(2021.08.19. 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1. 8. 26

편집 겸 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